

Physical AI road traffic system

CCTV · ITS · C-ITS · ATMS · EV-CPO
AI transportation platform
Traffic management system
Traffic signal system
Illegal parking enforcement
Robot patrol system
Smart crossroad

K-ITS의 미래를 세계로 확장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전문기업 (주)서경산업

(주)서경산업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지능형교통체계(ITS)와 C-ITS를 아우르는 '스마트 모빌리티'부터 AI 영상분석 기반의 '스마트 세이프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디지털 시티'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핵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서경산업은 기술력과 디자인 감각, 그리고 인재 경영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으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광진구 '구의역 하부 경관조명' 프로젝트로 〈제14회 서울시 좋은빛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어두웠던 도시 공간을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안전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켰다. 동시에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업현장교사 부문 대상'과 '학습기업 부문 우수상'을 동시에 석권하며, 기술 혁신이 '사람' 중심의 인재 양성에서 비롯됨을 증명했다.

나아가 최근 키르기스스탄과의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MOU를 체결하고, 2025년 10월 현지 법인과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11월 '키르기스스탄 엑스포 2025' 참가를 확정하는 등, K-ITS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도시와 사람,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서경산업의 이대규 대표이사를 만나 그들의 비전과 미래 전략을 들었다.

“
**사람과 기술로 도시를 연결하고,
 K-교통시스템의 미래를 세계로 확장합니다.**
 ”
 – 서경산업 **이대규** 대표



먼저 'Monthly ITS' 독자들에게 서경산업에 대해 자유롭게 소개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서경산업 대표이사 이대규입니다. 서경산업은 창립 이래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스마트시티 솔루션 통합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분절된 기술이 아닌 '통합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단순히 C-ITS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AI 솔루션을 납품하는 것을 넘어, 이 모든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흘러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디지털 시티(Digital City),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AI 영상분석(Smart Safety), 전기차 충전(Smart Eco) 등 4대 핵심 사업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사람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기술, 그것이 서경산업의 정체성입니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핵심 사업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핵심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며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시티'를 이룹니다.

첫째, '디지털 시티(Digital City)'는 저희 모든 기술의 집약체이자 컨트롤 타워입니다. 도시 전체를 가상의 디지털트윈(Digital Twin)으로 구현하고,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정책 결정자가 데이터에 기반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돋는 도시의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는 도시의 '혈관'을 책임집니다. ITS 및 C-ITS, 스마트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등 첨단 교통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특히 이 모든 인프라에 저희의 AI 영상분석 기술이 접목되어,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돌발상황에 대응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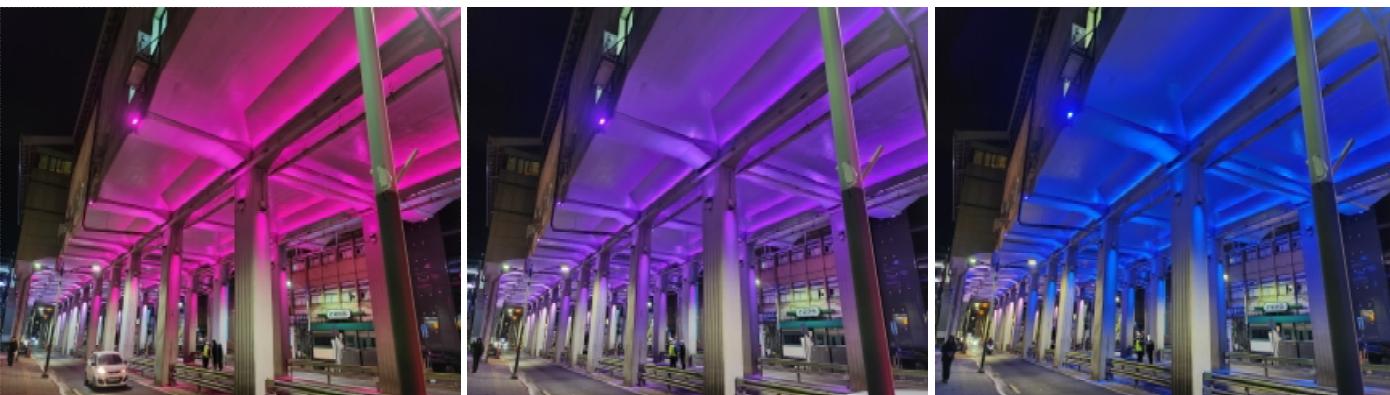
셋째, 'AI 영상분석(Smart Safety)'은 도시의 '눈'입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결국 '안전'입니다. 저희 AI 영상분석 솔루션은 단순 CCTV 관제를 넘어, AI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즉시 대응'합니다. 스마트 교차로에서 보행자 무단횡단이나 차량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C-ITS 시스템과 연동해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위험을 경고합니다. 또한 터널 내 화재, 역주행, 낙하물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제14회 서울시 좋은빛상' 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한 '구의역 하부, 빛으로 도시를 깨우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구의역 하부 공간은 2호선 고가철로 인해 수십 년간 어둡고 삭막한 이미지로 남아있던 곳입니다. 노후화된 조명 탓에 야간 보행 안전이 우려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공간이었죠.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성·안전·예술이 공존하는 공공 경관조명'이라는 컨셉으로 접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전(Safety)'이었습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입각하여 어두운 사각지대를 완벽히 제거하고, 정밀한 조도 계산을 통해 균일한 빛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보행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확산재를 적용해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했죠.

구의역 하부에 경관 조명을 조성하여 '제14회 서울시 좋은빛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동시에 '예술(Beauty)'을 더했습니다. 구조물 본연의 건축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천장부에는 빛의 흐름을 연출하는 선형 LED 라인 조명을, 기둥부에는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해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특히 계절이나 이벤트에 맞춰 핑크, 블루 등 다채로운 색상과 미디어 콘텐츠를 연출하는 '미디어파사드'를 구현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일상 속 특별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의 조화(Harmony & Eco)'입니다. 주변 상권이나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상향광을 철저히 제어하고, 심야 시간에는 조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빛 공해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물론 모든 조명은 고효율, 장수명 LED를 사용했고요.

이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께서 현장을 방문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시의 품격이 높아졌다", "밤에도 안심하고 걸 수 있게 되었다"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서경산업이 추구하는 '기술과 감성의 융합'을 보여준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라고 자부합니다

최근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두 부문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가능하게 한 서경산업만의 인재상과 조직 문화는 무엇인가요?

이번 수상은 저희에게 '서울시 좋은빛상'만큼이나 의미가 큽니다. 서경산업은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며, 인재는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 이러한 저희의 철학을 실천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전문가'입니다. ITS, AI, 통신, 전기 등 복합적인 기술을 다루는 저희 업의 특성상, 끊임없는 학습과 현장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신입사원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베테랑 '기업현장교사'(이번에 기업현장교사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장지원 이사)의 1:1 멘토링을 통해 빠르게 실무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수평적인 소통과 자율적인 R&D를 장려합니다. 저희는 구성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며, 실패를 통해 배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서경산업의 인재 양성 시스템과 성장 문화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직원이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및 학습근로자 기념사진





이대규 대표와 키르기스스탄 정부관계자들이 K-ITS 현지화를 논의하고 있다.



서경산업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市가 MOU를 체결 하였다.

해외에서도 서경산업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협력 이야기도 들리던데, 어떤 사업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K-ITS와 K-스마트시티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디지털 전환(DX)과 도시 인프라 현대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회의 땅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그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최근 현지 정부 및 파트너사와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이는 장기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협력을 공고히 하고 현지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 현지 법인 설립과 사무소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현지 거점을 기반으로, 오는 2025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키르기스스탄 엑스포 2025'에 참가하여 저희의 핵심 기술을 집약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단순 제품 홍보를 넘어, 실제 K-스마트시티 구축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현지 교통 및 도시 문제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를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K-ITS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도 기업이 되겠습니다.

확장하고 싶은 분야나 준비 중인 차세대 서비스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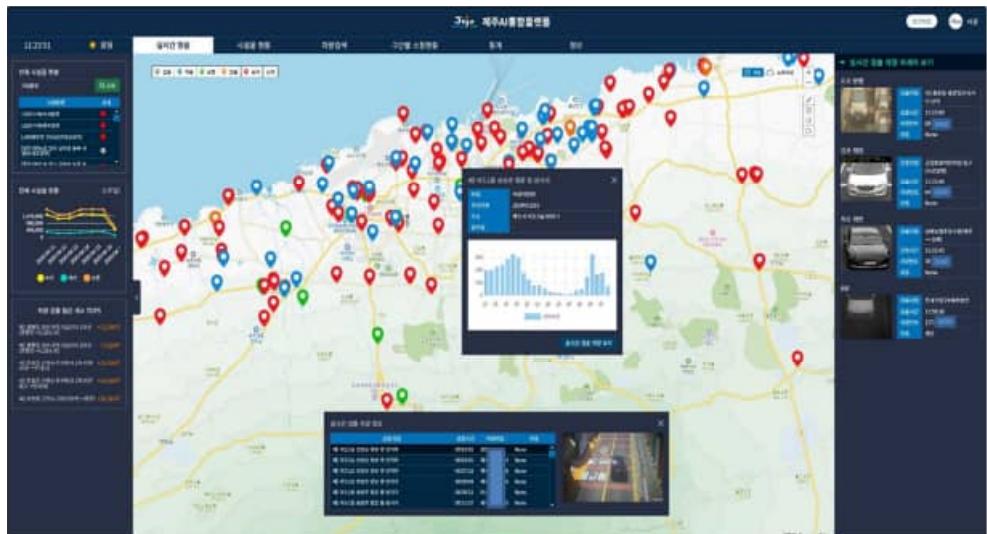
저희의 미래 비전은 '통합'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별 솔루션들을 하나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는 현실의 도시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하여, 새로운 교통 정책이나 인프라를 도입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 분 뒤의 교통 혼잡도를 예측하거나, 특정 지역의 사고 발생 위험도를 미리 경고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데이터로 먹고사는 시대가 온다"는 말처럼, AI가 일상화된 지금 데이터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서경산업은 AI 영상분석, 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 및 다년간의 지자체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막대한 양의 '정제된 현장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연료'이자, 그 자체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원천'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도시 데이터를 가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계획에 필요한 교통 패턴 분석 리포트, 물류 회사를 위한 최적 경로 제안, 보험사를 위한 사고 위험도 예측 등 고도화된 '데이터 기반 서비스(DaaS, Data as a Service)'를 구현할 것입니다. 단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데이터를 통해 도시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저희의 다음 목표입니다.



서경산업에서 구축한 제주 AI 통합차량 관리시스템

마지막으로 'Monthly ITS' 독자들에게 '서경산업이 필요한 이유'를 전해 주세요.

도시는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며, 기술은 그 그릇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여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술이 사람의 감성이나 실제 필요와 동떨어져 차가운 인프라로만 남기도 합니다.

'서경산업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그 '기술'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구의역의 어두운 길을 '안전하고 싶은' 보행자의 마음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은' 시민의 감성으로 밝혔습니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성장하고 싶은' 청년의 잠재력을 '함께 키우는' 기업 문화로 꽂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스탄에서 '더 나은 도시를 꿈꾸는' 그들의 비전에 K-ITS라는 훌륭한 솔루션으로 답하고자 합니다.

서경산업은 실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따뜻한 기술'을,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고민하고 구현합니다. 모든 시민이 소외받지 않고 안전하며 쾌적한 스마트시티, 그 미래를 만드는 길에 서경산업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